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Let us live by faith.)

애가 1:1-6, 딤후 1:8-14, 눅 17:5-10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도우심이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는 안타까운 한마디의 한탄으로 전체 글의 첫 마디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 슬프다.” 상황이 얼마나 안 좋으면, 글의 시작을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작은 국가였지만,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거치며 강소국, ‘작은 강국’의 면모를 지녔던 적이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생활을 뒤로 하고 힘겨운 광야생활을 통과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정착한 것만도 대단했는데, 이웃 국가들로부터 조공까지 받았으니, 그 영광은 아마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못 나라의 으뜸이라던 나라가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여왕과 같던 지위가 종의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남자들 대다수는 전쟁터에서 죽었고, 여성들은 통곡 말고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던 지도급 인사들은 강대국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갔고, 나라 전체는 비참과 폐허 한 가운데로 내몰렸습니다. “아, 슬프다.”는 애가의 첫 마디가 이해가 갑니다.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 슬프다.”는 애가의 상황보다 아직은 더 나은 것 같아 보입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으로 한껏 부풀어 있던 한반도의 상황은 여전히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냉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한일관계는 관계정상화 이래로 가장 첨예한 대립, 반목, 질시 가운데 있습니다. 동맹이라는 한미관계도 녹록치가 않습니다. 지소미아 파기와 방위비 분담 등의 문제로 인해서 안보가 어려워질 수 있겠다며 걱정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정치는 완전히 표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회 내에도 전현직 국회의원들과 장관 출신까지 여러 분이 계시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눈높이와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국민 전체가 둘로 양분되어 있는 양상입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교회는 세습의 문제로, 또는 맘몬이즘에 매몰되어 세상의 상식과 법보다 수준 이하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더욱이 목회자들을 교육하는 신학자이지만, 매우 부끄럽습니다. 도대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마음 편하게 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말씀을 준비한 저도 오늘 성서정과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전해야 할지 그저 난감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간절히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인해서 옥중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옥중생활은 옥중이라 하더라도 가택연금 수준의 생활이었지만,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는 자유가 완전히 차단된 지하 감옥 수준의 힘겨운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주님을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증언하다 감옥에 갇힌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자신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작은 예수로서의 인생을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증언한다는 것은 자신의 말과 행동, 삶 전체로 주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에 의하면, 자신의 죄악, 수치, 이기심, 무관심, 증오 등의 언행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결코 주저하지 말고 언행과 삶으로 전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정도에 머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겪으라.”며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복음이 무엇이길래 고난까지 감수하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과연 복음을 고난과 함께 기꺼이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고난을 즐기는 마조키스트(Masochist)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께서 공적인 사역에 들어서면서 전한 첫마디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회개하라.”(막 1:15)는 것이었습니다. 예수의 첫 번째 관심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마지막 관심사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예수의 궁극적인 관심사이자 그분의 존재의미는 하나님의 나라 자체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 어딘가에 있는 이상향’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천국, 천당, 파라다이스가 그러한 이미지를 강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이후의 현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삶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구체성을 당신의 공적인 사역의 취임식이라 말할 수 있는 나사렛 회당에서 분명히 드러내셨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눅 4:18) 복음이란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자유가 없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누리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해서 모든 사물의 실상을 제대로 보게 하는 것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이 억누르는 온갖 짐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이란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해서 모든 부정의와 불평등을 해소하고, 누구나 다시 원점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름 아닌 복음이 구체화 된 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넘실대는 나라를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 일하다가 자기처럼 지하 감옥에 갇히는 고난에 직면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은 너무나 분명하고 단호합니다. 이 권면은 디모데에게만 배타적으로 주어진

권면이 아닙니다. 오늘 힘겨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놈의 돈이 무엇입니까? 그놈의 명예가 무엇이며, 그놈의 권력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그것들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그것들을 향해서 불나방처럼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들을 쟁취할 수만 있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그것들의 아우라에 갇혀서 부끄러운 삶을 개의치 않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에 대해 당당하게 살기는커녕 세상 염려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자신을 그분의 제자라고 고백하면서도, 작은 예수의 삶을 살기는커녕 자신의 욕망과 관심을 충족시키는 것에 몰두하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고백하면서도, 성령과 함께 성령으로 산다고 고백하면서도, 선한 것을 지키는커녕 악을 도모하는데 신속히 움직이며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무신론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눅 17:5)라고 간구합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믿음을 더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혀 다른 말씀이었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뽕나무더러 ‘뽕혀서, 바다에 심기어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눅 17:6)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회개입니다. 세상에 매몰된 삶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으로 전환하는 것

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부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이기심과 자기 이해관계를 떨쳐버리고 성령의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삶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학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습니까?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할지라도, 악의 정체는 기어이 드러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세상에서 힘을 행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죽임의 세력이 부활의 능력 앞에서 오래지 않아 무기력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에 대해서는 기어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할지,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우리 시대에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신다면,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실지 물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대답에 진실하게 응답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입으로만 사랑을 운운하거나 입으로만 진리를 운운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우리의 삶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유무 자체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믿음의 크기가 겨자씨만 하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만한 큰일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있다면 믿음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 고난을 겪는 자리까지 기꺼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